

“日 교토대도서관 소장 ‘대승사론현의기’ 서기 600년에 혜균이 저술 ‘대승기신론’ 보다 60년 앞선 국내 最古 문헌”

최연식·플라센 교수 주장...김성철·김상현 교수 “좀더 검토해 봐야”

‘우리나라 최고(最古) 문헌으로 알려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년 앞서 저술된 불서의 필사본이 일본 교토대 도서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제의 승려 혜균이 600년 경에 백제 지방에서 저술한 <대승사론현의기>가 그것이다.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최연식 교수와 독일 보름대 한국학과 플라센 교수는 10월 20일 한국사연구회와 목포대가 공동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논문 ‘대승사론현의기’의 친술지역과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한국고대 불교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대승사론현의기>의 중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최 교수와 플라센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는 백제의 승려 혜균이 확실하는 증거를 고증했으며 불교 삼론학의 개론서인 이 책은 7세기 중후반 저술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년 가량 앞서 저술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를 저술한 혜균이 백제 승려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 문헌에 나오는 절 이름 ‘보희사(寶熹寺)’가 2000년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에 기록된 ‘보희사(寶熹寺)’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내용 중 ‘현재 이곳의 보희연사(寶熹淵師)·...’에서의 ‘현재 이곳’이란 편찬 지역을 의미하고 보희연사는 백제 보희사의 연사 스님을 지칭한다”며 “2000년도 능산리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에서 보희사는 백제의 사찰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백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센 교수도 “<대승사론현의기>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년 앞선 600년 경에 저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삼론종 중흥의 시조’ 길장(549-623)의 <대승현론>이 내용상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를 의식하며 편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길장의 <대승현론>의 내용 중에는 이미 혜균이 <대승사론현의기>에서 서술한 개념

들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승사론현의기>가 600년 경에 저술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이 문헌의 내용에도 들어 있다. 문헌에서는 ‘길장이 장안으로 간 599년이 기록돼 있고 일본 승려가 일본 왕에게 <대승사론현의기>의 필사본을 바친 해가 658년이다’라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의 저술 시기는 599년과 658년 사이가 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삼국시대 이전 책으로 편찬된 우리 문헌이 사실상 전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필사본의 발견은 한국의 사상사 연구 등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는 논평을 통해 “최 교수의 논문 자체만을 놓고 <대승사론현의기>를 검토한다면 이 문헌은 600



2000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목간. ‘보희사’라는 절 이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일본 교토대에 보관중인 <대승사론현의기>중 ‘보희연사’ 설명대목.



최연식 교수
능산리 발견 목간의 ‘보희사’ 백제 사찰 ‘보희연사...’와 일치



플라센 교수
599~658년 사이 저술 중국 ‘대승현론’에 영향 “日 승려가 왕에게 필사본 바쳐”

년 경에 저술된 백제의 불교문헌으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문헌이 확실하고 7세기 초 백제 불교계의 동향 및 6세기 중국 삼론학의 초기적 모습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 혜균이 ‘백제 승려인지 일본 승려인지 중국 승려인지’를 놓고 의견이 많았다. 이번 논문을 통해 혜균은 6세기 후반 남중국의 진나라에 유학해 삼론학의 이론체계를 수립한 법랑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에 백제로 귀국해 삼론학을 전파한 백제의 승려로 밝혀진 것도 큰 성과로 평했다.

하지만 김성철 교수는 “최연식 교수가 소재로 삼고 있는 <대승사론현의기>서 廣州三藏(만속장경, p.201상)이 廣州三藏(만속장경, p.180하) 등 오사(誤寫)된 글자가 많이 발견된다”며 “이것을 근거로

할 때 본 논문의 결정적 근거로서 최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今時此間 寶熹淵師 祇洹雲公’이라는 구절은 ‘今時此間 寶熹淵師 祇洹雲公’의 오사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寶熹淵師를 寶熹法師의 오사라고 보고서 ‘비간(此間)은 앞에 열거한 십사(十師) 중에서’라고 이해할 때 전체 문맥 역시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로마자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로 기술된 문헌과 비교할 때 표의문자인 한문으로 기술된 문헌에서 오사된 글자가 특히 많이 발견되고 한문의 경우 제한된 면적 내에서 획의 변형과 첨가를 통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야 하기에 유사한 글자가 많다”며 “해서체로 씌어진 문헌의 경우도 오사가 많을 수 있지만, 행서나 초서로 쓰인 한문문헌에서 원래의 글자를 복원

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도 “최 교수가 논문에 발표한 자료 인용과 고증이 확실하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이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는 백제의 승려 혜균이 맞겠지만 김성철 교수가 지적한 오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식 교수와 플라센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와 지리학자들은 “좀더 충분한 자료검토와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불교 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대승사론현의기>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년 빨리 저술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주요사찰 방재대책 조사보고서 발간

조계종, 30개 사찰 조사...개선방안 등 수록

사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소방방재시스템은 필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분석과 주요사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 소방시스템을 제시한 지침서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경과 및 사찰방재 현황과 사례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 △해외사례 △대안설계 △방재대책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방재 현황과 사례에서는 1997년~2003년 간 발생한 각 지역별 사찰화재의

원인분석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국 주요 30개 사찰에 대한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에는 각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분포도와 소화전 배치 및 작동, 소방수 급수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한 체크리스트, 조사결론 등이 제시돼 있다.

특히 대안설계에서는 그동안 피상적 사찰방재 정책제시와는 달리 직접적인 현장 조사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방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소방설비 현황과 표준형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방재 시스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삼세실유설의 재고찰’ 등 발표

보조사상연구원 법륜사서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21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륜사에서 제 72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황정일 교사의 ‘삼세실유설의 재고찰’ 부산대 권서용 교사의 ‘다르마카르티의 이중적 인식에 대한 고찰’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황정일 교사는 논문을 통해 “세친(世親)이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비판하는 기본적 입장은 <승의공계경>에 근거한 것으로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있다가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비록 철학적 시간이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유부의 존재론적 관점은 과거와 미래에 실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며 세친이 현재법만의 실유를 근거로 현재의 실유만을 주장했다면, 유부는 과거·미래의 실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세(三世)가 실유한다는 것은 곧 삼세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실크로드에서 한류까지’ 문화교류 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27일부터 세계한국학대회

세계 인문학 석학들이 제주도에 모여 열린 토론의 장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주대학에서 ‘문화교류의 역사와 현실-실크로드에서 한류까지’를 주제로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를 개최한다.

종교·문화·언어·역사·사회·경제·민속 등 12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인문학자 200여명이 참석하고 발표되는 논문만도 150여 편이 넘는다.

특히 29일 열리는 종교분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의 ‘불교와 혼민

정읍’ 원광대 김영두 교수의 ‘나옹 혜근의 선사상과 국제교류’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이영희 교수의 ‘조선 후기 불교의 성격’ 독일 튀빙엔대 디터 아이게마이어 교수의 ‘고대 이집트와 부처의 나라 인도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모세 모티프’ 네덜란드 트립트대학 반데 생커 타과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인도불교’ 등 6편의 불교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 기사남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는 쉽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대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깝게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